

지방의회 연구 경향 비교·분석 : 국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nalyzing Trends in the Study of the Local Council

: A Comparison with the National Assembly

김정숙*·유은지**·한승혜***

Kim, Jungsook·Yoo, Eun Ji·Han, Seunghye

■ 목 차 ■

- I. 서론
- II. 지방의회의 연구경향: 행정학과 정치학의 시선
- III.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 IV. 전통적 연구경향 분석
- V.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 VI. 결론

지방의회는 헌법에 근거한 지자체 단위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와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관한 행정학과 정치학의 학문적 논의는 문제점 진단과 처방적 방안에 머물러 있으며, 국회에 비해 그리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 경향을 국회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996년 이후 한국행정정보와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전통적 연구 경향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통적인 연구분류 방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의회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며, 연구범위에 있어서도 국내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양적연구에 치중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지방의회를 다룬 연구가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중점 분야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연구에서 정책지향적 연구가 두드러지게 나타

* 제1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1저자,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수료

*** 제1저자,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수료

논문 접수일: 2020. 01. 28, 심사기간: 2020. 01. 28 ~ 2020. 02. 21, 게재확정일: 2020. 02. 21

났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결과, 두 주제에서 모두 핵심어간의 네트워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의 연구가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것에 비해 국회의 연구는 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주제어: 지방의회, 국회, 연구경향 비교, 연구경향 분석

The local council is the same status as the central council. Despite this status, the academic debate on administration and politics of the local council remains in diagnosing and prescribing a problem, and is less important than the central council.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trend of research on local councils in Korea by comparing them with the central council. To this end, we conducted traditional research trends and network text analysis on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since 1996.

As a result of analyzing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classification method, the discussion on local councils is relatively insignificant, and the scope of research remained at the domestic level. In addition, although the research focused on quantitative research as a whole has been progressing, researches dealing with local councils have used a variety of research methods. Focusing on the research, the policy-oriented research is prominent in the research on local councils. Network text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no strong network of key words in both themes. While the council's research constitutes a large network, the council's research can be estimated to be conducted in more diverse fields.

□ Keywords : Local Council, National Assembly, Research Trend Comparison, Research Trend Analysis

I. 서론

지방의회는 헌법에 근거한 지자체 단위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을 통제하고 각종 조례를 제정하며 예·결산을 처리한다. 지역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체로서 대의기관이며 헌법상의 기관(이청수, 2008; 51)으로서 국회와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¹⁾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지방의회는 “운영과정 상 미숙함, 법적 자치권의 제약 및 모호성, 중앙정부의 지방의회에 대한 지나친 관여, 지방의원의 역량 논란,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 주민의 무관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나친 갈등 관계 등”의 문제들에 머물러(김귀영, 2015; 83-84), 실질적인 대표기관의 위상에 맞는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향들은 현실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학문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지방의회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은 행정학과 정치학이다. 두 학문의 학자들이 지방의회에의 문제점 진단과 이에 대한 처방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을 보고하고 있으나(최봉기, 2005; 조경호·김명수, 1995; 김순은, 1995; 이정훈·김진윤, 2010; 송광태, 2003; 최호택·정석환, 2012; 강상원·최병대, 2010), 지방정치의 민주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정립 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행정학과 정치학에서 지방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모든 학문을 다루는 연구자들은 각자의 학문 영역 안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 정치행정현상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학문적 연구주제로 삼는다(배응환, 2000). 이때 이들의 연구들은 그들이 배경적으로 가진 이론적 지식, 연구 경향, 정치행정 현상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행정학과 정치학에서의 정부와 이익집단관계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배응환(200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의 연구에서는 두 학문에서 동등하게 다루고 있는 연구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다루졌는지를 살피고 있다. 1990년대 정부와 이익집단관계에 적용한 모형으로 다원주의, 코포라티즘, 정책네트워크 모형이 자주 활용되었으며, 한국정치학회보에서는 기타 모형도 자주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행정학회보에서는 산업, 노동, 환경, 일반정책에서 자주 적용되었고, 한국정치학회보에서는 경제, 산업, 노동정책에서 자주 적용되어 연구모형과 분야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주된 질문은 ‘한국에서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은 ‘한국의 행정학과 정치학에서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는

1) 지방의회는 헌법에 근거한 지자체 단위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을 통제하고 각종 조례를 제정하며 예·결산을 처리한다. 지역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체로서 대의기관이며 헌법상의 기관(이청수, 2008; 51)으로서 국회와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

어떻게 이뤄져 왔는가?’이다. 이는 세부적으로 행정학과 정치학에서 지방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상으로 다뤄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제되는 질문이다. 이러한 연구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1996년 이후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경향 분석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지방의회 연구 경향을 국회와의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 지방의회의 연구경향: 행정학과 정치학의 시선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을 통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결산을 심의·승인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의결기관으로서 법률적으로 중앙 단위의 국회와 동등한 위상에 있다.

지방의회는 분권화와 지방자치 실시 결과 형성된 제도이다. 1948년 제헌헌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후 1952년 제1회 지방의회 선거가 이루어졌지만,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해산되었고, 1991년에 다시 재개되었다(이청수, 2008; 49-50). 국회와 지방의회는 국민 또는 지역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 입법 기능(법률, 조례), 예산의 의결, 정부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진두생, 2010; 21-23).

한국에서 지방의회의 실질적 위상과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 단위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들은 분권화의 가속화에 따라 그 위상을 높여 왔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분권화는 국가 중심의 개발이 보인 ‘성공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형평성, 지역 특수성을 강조하는 정치 민주화의 과정과 함께 이루어졌다(이종수, 1998).²⁾ ‘성공의 위기’를 극복한 과정은 정치적 민주화의 수단으로서 분권화를 이행했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 분권화 과정이 아닌 역순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³⁾ 따라서 분권화는 중앙의 강력한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 행정 중심의 지방자

2) ‘성공의 위기’란 동아시아 국가들 내에서 이루어진 분권화 과정의 두 가지 패턴을 뜻하는 용어로,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의 성공으로 인한 불균형적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분권화 노력을 의미한다(김장권, 1994; 599; 이종수, 1998; 171).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패의 위기’란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권화 노력을 뜻한다(김장권, 1994; 599; 이종수, 1998; 171).

치로 정리할 수 있다.⁴⁾

한국의 분권화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으며(이종수, 2002: 71), 초기에는 다원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가 정치학 이론을 행정학 연구에 차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이종수, 2008: 33).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가 점차 늘어감에 따라 행정학 분야에서 자치이론, 지방의회, 각 정책 부문, 중앙과 지방 간 관계, 주민 관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이병렬·박기관, 2002), 정치학 분야에서 지방정치 이론, 지방선거 및 투표, 단체장, 지방선거와 정당구도 등의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성경룡, 1998; 이종수, 1998; 김만흠, 1999; 이재현, 2017; 안재홍, 2000; 신기현 외, 1993).

지방의회를 다루는 연구들에서도 행정학과 정치학의 연구 경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학 연구 분야에서는 분권화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를 성숙한 제도로 확립하고 이의 역할 및 위상 정립을 요구하는 연구 경향을 보였다. 이와 달리 정치학 내에서 주된 논의는 한국의 지방정치와 민주적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김만흠(1998a: 174)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중앙권력에 종속된 후원자-수혜자(patron-client)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이러한 관계가 실질적인 지방정치를 좌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정치가 1990년대 이후에서야 사실상 제대로 정립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대응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중앙정부를 향한 것이었다고 보았다(김만흠, 1998a).⁵⁾ 즉, 중앙정부의 권력과 지역사회가 이른바 후원자-수혜자의 권력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분권화 논의의 주된 발원지가 중앙정부가 되고 분권화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 하에 지방의회 강화의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정치학의 시선에서 이 과정은 지방 차원의 민주성을 담보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더욱 미숙한 수준으로 정체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처럼 지방 단위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지방의회는 행정학과 정치학의 관심을 동시에 받지만, 실제 두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진 지방의회 관련 연구에서 보이는 연구 경향은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의회를 다루는 행정학과 정치학의 연구 경향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 분권화를 추진하는 과정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1) 지방화를 통해 민주화를 이루려는 순서상 역위, 2) 정치경제적 구조 문제들의 지역 문제들로 은폐, 3) 국가질서 해체 위험 등(이종수, 1998: 177)

4) 성경룡(1996: 276)은 한국의 분권화는 법, 제도적 측면에서 ‘중앙통치체제의 변형’으로 정의하였다.

5) 김만흠(1998a: 168)은 이제까지 한국의 지방정치 관련 선행연구들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가 지역 사회 저발전, 폐쇄화, 비민주성을 해소할 수 있는 중대한 방안이라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의 분권화를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 설명한 이종수(1998: 2002)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을 형성한다.

Ⅲ.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지방의회와 국회 관련 선행연구들이다.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행정학과 정치학의 관점과 이에 따른 연구 경향을 국회에 관한 연구 경향과 비교·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회와 지방의회 관련 제도, 중앙의원과 지방의원의 행태 및 성과 등을 다루는 연구들의 초록을 분석 자료로 수집하였다.⁶⁾

연구의 대상 범위는 1996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들이며, 한국행정학보 28편(지방의회 21편, 국회 7편), 한국정치학회보 57편(지방의회 6편, 국회 51편)이다. 지방의회 관련 논문은 총 27편, 국회 관련 논문은 총 58편이다. 연구시기를 1996년 이후로 한정된 이유는 제1차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995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해부터 실질적인 지방의회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 연구 경향 분석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모두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기존에 주로 행해지던 전통적 연구 경향 분석이 주제, 연구방법, 연구내용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개별 연구들이 포함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

전통적 연구 경향 분석의 경우, 주로 연구주제, 연구영역, 연구방법 등의 주관적 분석들에 따라 선행연구들을 분류하여 경향을 파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분석들에 따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의 경우 개별 연구주제가 어떠한 연구내용과 연결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핵심어의 빈도, 핵심어 간 구조 등의 속성을 파악함은 물론 단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통해 연구경향들이 보이는 언어와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하혜수·최영출, 2013).

첫 번째 전통적 연구경향의 경우 크게 연구수준과 학문분야(학술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수준의 경우, 국회와 지방의회로 구분하여 해당 논문이 국회의원, 국회운영제도, 국

⁶⁾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 공직자, 민주주의 등과 같은 연구들은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회의원 선거, 국회-행정부의 관계 등을 논의하였는가, 아니면 지방의원, 지방의회제도, 지방의회의 운영, 지방의원 선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관계 등을 논의한 것인가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단순한 연구경향 뿐만 아니라 국회와 지방의회의 연구경향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다각도로 연구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의회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함의를 지닌다. 다음으로 학문분야별 경향분석은 한국행정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치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정치학회보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치학회보는 행정학과 정치학을 대표하는 학술지로써 각 학문분야가 바라보는 시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텍스트를 분석자료로 활용하는 연구방법으로서, 텍스트 내의 단어 간 관계를 링크로서 표현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텍스트의 내용을 해석하는 분석 방법이다(Popping, 2000). 이러한 분석 방법은 텍스트 관계의 구조가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를 반영함을 가정하여, 텍스트에 담겨진 특정 연구 및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최영출·박수정, 2011). 또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핵심어 간 구조 파악이 가능하고, 전통적 문헌 분석 방식에 비해 객관적이고 분석적이며,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의 종합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세 가지 장점을 갖는다(김정숙·문명재, 2017).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에서는 각 어휘 간의 관계를 사회네트워크(social network)에서의 개인 혹은 기관 사이의 연결 구조와 유사하게 간주한다. 사회네트워크분석에서 각 노드(node)간의 연결정도는 중심성(centrality)으로 파악한다. 중심성이 높은 개념일수록 네트워크 구조에서 더 핵심적인 위치에 있고 더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네트워크의 중심성은 크게 노드 간의 최단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과 노드와 노드를 그 사이(between)에서 연결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중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들 수 있으며(허명희, 2010: 13), 이 연구에서는 두 중심성 개념을 통해 핵심어가 전체 논문의 네트워크에서 가지는 위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근접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의 핵심어 간 최단거리가 짧을수록 높은 중심성을 나타내며, 아래의 수식과 같이 최단거리 각 핵심어 사이의 최단거리의 역수의 평균을 사용한다.

$$\text{핵심어 } i \text{의 근접중심성 } C_C(i) = \frac{\sum_{j \neq i} \frac{1}{d_{(i,j)}}}{n-1}, \quad i = 1, \dots, n$$

$d_{(i,j)}$: $word_i$ 에서 $word_j$ 로 가는 최단거리

중개중심성은 핵심어가 다른 핵심어들을 연결하는 허브(hub) 역할을 할 때 중심성이 높다

고 가정하며, 각 핵심어가 다른 핵심어들 간의 최단거리에 끼이게 되는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 아래의 수식과 같이 측정한다.

$$C_B(v) = \sum_{i \neq v} \sum_{j \neq v, \neq i} \frac{g_{ivj}}{g_{ij}}, \quad v = 1, \dots, n$$

g_{ij} : $word_i$ 에서 $word_j$ 로 가는 최단경로 ($i \neq j$)

g_{ivj} : $word_i$ 에서 $word_j$ 로 가는 최단경로 가운데 $word_v$ 를 거치는 경로의 수 ($i \neq j \neq v$)

3. 연구의 분석영역 및 분석수준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연구분석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구수준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으로 삼았고, 전통적 연구경향 분석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병행하여 각각의 연구범위, 연구수준,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행정학과 정치학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방의회 연구가 갖는 상대적 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1〉 연구의 분석틀

구분	분석기준	분석내용
연구수준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전통적 연구경향 분석	학문분야(학술지)	한국행정학보 / 한국정치학회보
	연구범위	국내 / 국외
	연구방법	양적 연구 / 질적 연구
	연구중점	정책지향 / 이론지향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연구범위	논문초록
	연구수준	국회 / 기초 지방의회
	연구방법	네트워크시각화 / 근접중심성 / 중개중심성
행정학과 정치학의 비교·분석	각 학문별 대표지널에 따른 연구경향 비교	

자료: 김귀영(2011: 88) 재구성⁷⁾

7) 지방의회의 연구 경향을 분석한 김귀영(2011)의 연구에서는 연구방법론, 연구주제 분석을 통해 연구의제를 도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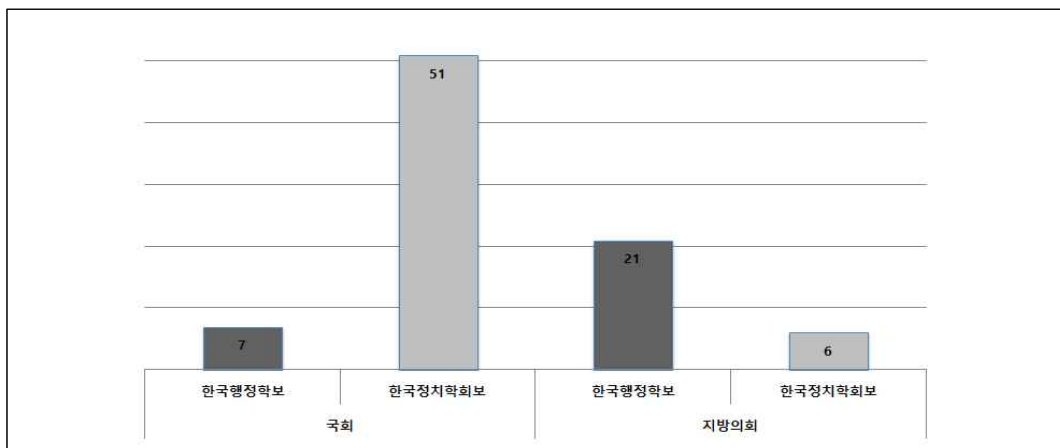
IV. 전통적 연구경향 분석

1. 연구현황

본 연구는 연구분석틀을 바탕으로 연구범위, 수준, 중점의 세 가지 분류기준을 통해 연구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의회에 관한 연구인지, 해외 의회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연구범위를 구분하였고, 연구방법으로는 통계분석을 활용한 양적연구인지, 국가 비교, 사례연구 등의 질적 연구인지를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중점의 경우, 해당 연구가 정책지향(실태분석, 대안제시, 정책진단)을 목표로 하는가, 아니면 이론을 지향(이론검토, 한국화)하는가에 따라 분류하였다.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존연구들의 대략적인 경향은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국회 및 지방의회와 관련된 연구는 총 85편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총 58편, 지방의회에 대한 논의가 27편으로 국회에 관련된 연구가 지방의회 연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연구수준을 학술지별로 구분하여 보면, 국회에 관한 논의는 한국정치학회보가 51편으로 두드러지고, 지방의회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 반대로 한국행정학보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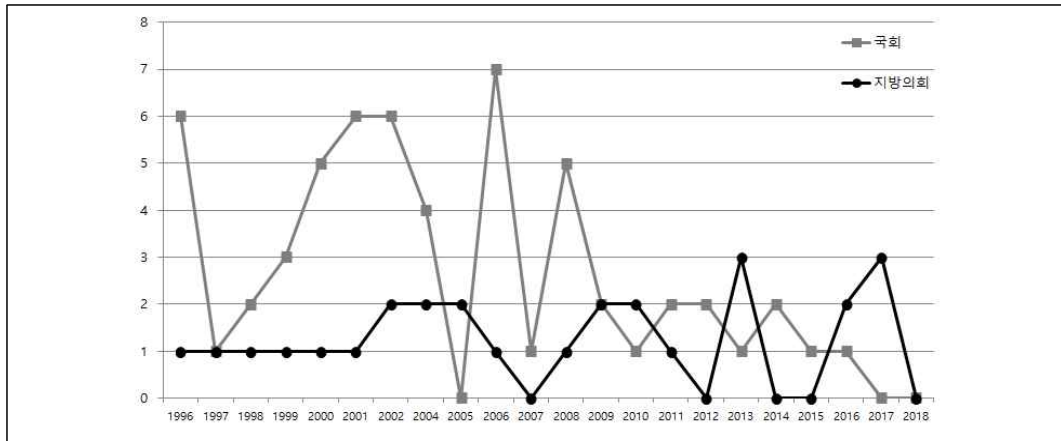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수준 및 학술지별 현황



8) 분류는 2명의 연구자가 해당 논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분류하였으며,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토의하여 정하였다.

또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국회 및 지방의회 관련 논문 수를 확인해 보면, 2005, 2010, 2013, 2016, 2017년도를 제외하고는 국회 관련 논의가 지방의회보다 잦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에는 국회 관련 연구가 활발하였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에 관한 논의가 다소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회 및 지방의회 관련 연구가 적은 수이고, 특히 지방의회 연구의 경우 정치학 분야에 비해 행정학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경향 분석을 통해 향후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2〉 연도별 연구현황



2. 연구경향분석

1) 연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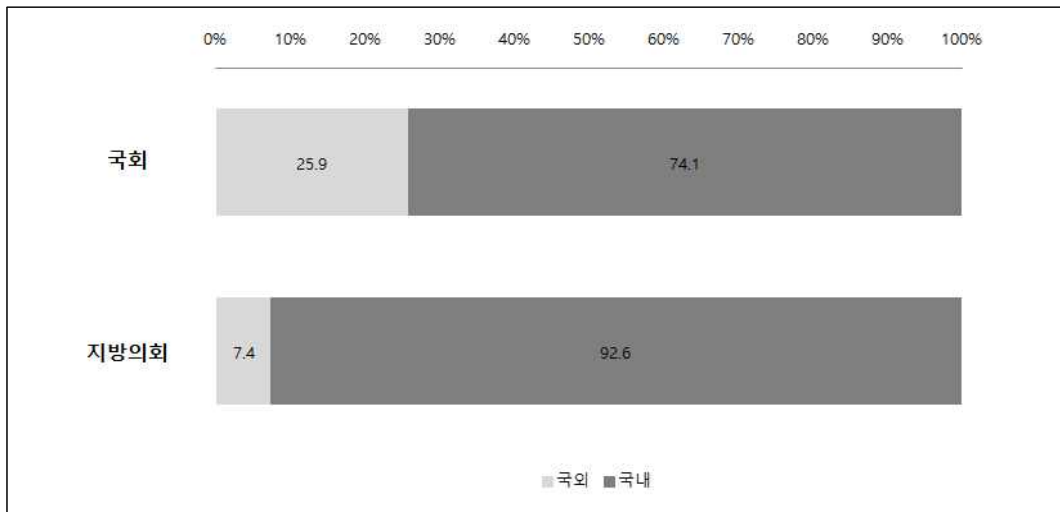
연구범위별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전체 논문 중 68.2%인 58편의 논문이 국내를 범위로 하였고, 특정 지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논문 중 31.7%(27편)가 외국의 국회 또는 지방의회를 대상을 하였다. 특히, 국회가 지방의회에 비해 해외의 국회 및 의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의회는 연구의 경우 92.6%가 우리나라 지방의회를 다룬 연구이다.

세부적으로 학술지별 연구범위를 파악한 결과, 다음 〈그림 4〉와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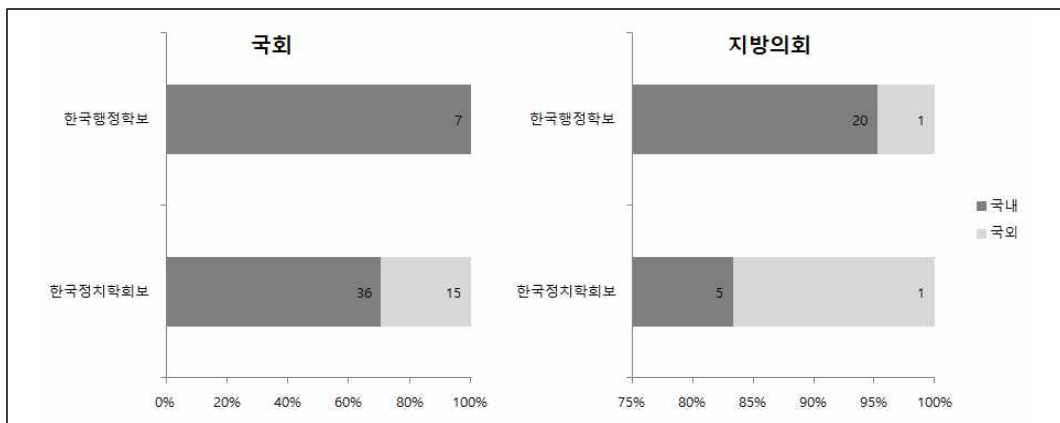
한국행정학보의 경우, 국회와 지방의회 관련 연구를 망라하여 대부분의 연구들(96.4%)이 국내를 대상으로 하였고, 특히 국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가 우리나라 국회에 관한 연구에 치중

되어 있다. 반면, 한국정치학회보의 경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71.9%, 해외의 국회 및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가 28.1%로 상대적으로 국외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국회 관련 연구의 경우, 29.4%에 이르는 16편의 논문이 외국 의회를 다룬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연구수준별 연구범위



〈그림 4〉 학술지별 연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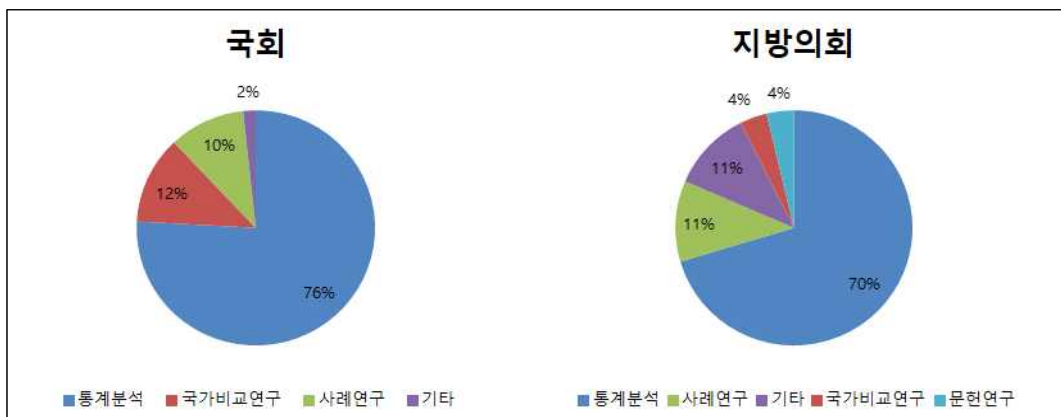
〈표 2〉 학술지별 연구범위

구분		합계	국내	국외
한국행정학보	합계	28	27(95.2%)	1(2.0%)
	국회	7	7(100%)	0
	지방의회	21	20(95.2%)	1(4.8%)
한국정치학회보	합계	57	41(71.9%)	16(28.1%)
	국회	51	36(70.6%)	15(29.4%)
	지방의회	6	5(83.3%)	1(16.7%)
총합계		85(100%)	58(68.2%)	27(31.7%)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기존의 연구경향을 분석해보면, 먼저, 연구수준을 막론하고 양적방법인 통계분석이 74.1%를 차지하여 많은 경우에 통계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수준별로 살펴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관련 연구의 양상이 비슷하기는 하나, 국회의 양적연구 비율이 다소 높고(76%), 지방의회 연구의 질적 연구 유형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회 연구는 국가비교 연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지방의회연구의 경우 사례연구나 제도 개선 및 제언을 위한 기타 질적 연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연구수준별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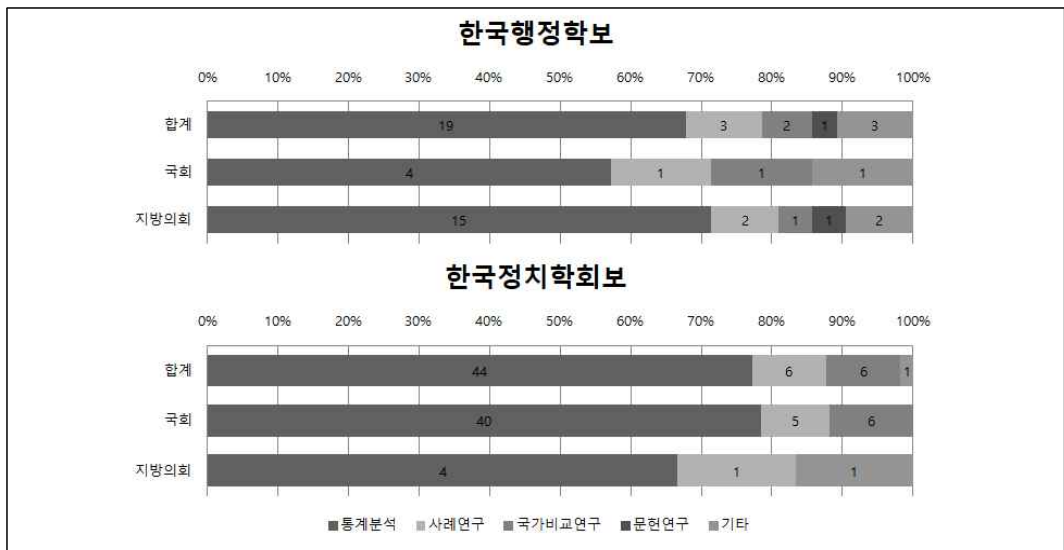


〈표 3〉 연구수준별 연구방법

구분	국회					지방의회					
	합계	통계 분석	사례 연구	국가비교 연구	기타	합계	통계 분석	사례 연구	국가비교 연구	문헌 연구	기타
논문 수	58	44	6	7	1	27	19	3	1	1	3
%	100	51.8	7.1	8.2	1.2	100	70.4	11.1	3.7	3.7	11.1

한편, 학술지별로 살펴보면 양적방법을 활용한 연구의 비율은 한국정치학회보가 다소 높은 수준(한국정치학회보 77.2%, 한국행정학보 67.9%)이며, 한국행정학보의 경우 국회(57.1%) 보다는 지방의회(71.4%)가, 한국정책학회보는 국회(78.4%)관련 연구에서 양적연구의 활용수준이 높다. 또한,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지방의회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방법의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적 연구의 경우 사례연구나 국가비교연구에 비해 문헌연구가 미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학술지별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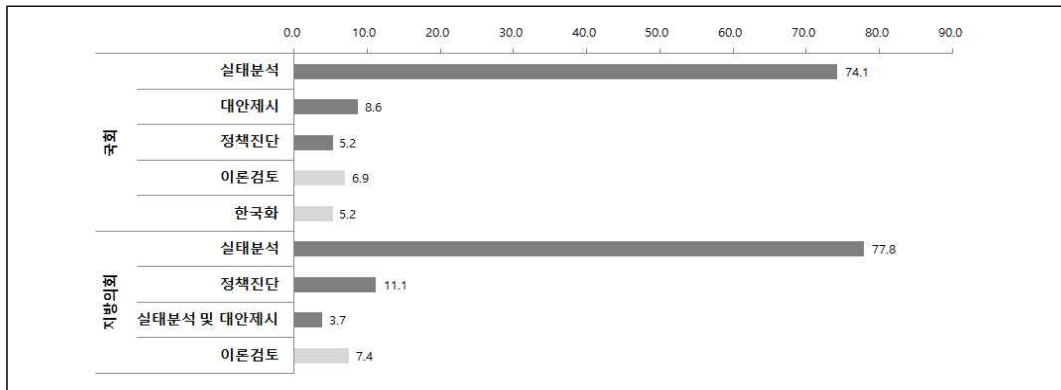
〈표 4〉 학술지별 연구방법

구분		합계	양적연구				질적연구			
			통계분석	사례연구	국가비교연구	문헌연구	기타			
한국 행정학보	합계	28	19(67.9%)	3(10.7%)	2(7.1%)	1(3.6%)	3(10.7%)			
	국회	7	4(57.1%)	1(14.3%)	1(14.3%)	0	1(14.3%)			
	지방의회	21	15(71.4%)	2(9.5%)	1(4.8%)	1(4.8%)	2(9.5%)			
한국 정치학회보	합계	57	44(77.2%)	6(10.5%)	6(10.5%)	0	1(1.8%)			
	국회	51	40(78.4%)	5(9.8%)	6(11.8%)	0	0			
	지방의회	6	4(66.7%)	1(16.7%)	0	0	1(16.7%)			
총합계		85	63(74.1%)	9(10.6%)	8(9.4%)	1(1.2%)	4(4.7%)			

3) 연구중점

궁극적으로 해당 연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연구현황을 보면 전체 89.4%에 해당하는 79편의 논문이 정책지향을 연구중점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국회 및 지방의회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이론화보다는 현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지방의회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전체연구 중 92.6%가 정책지향 연구이며, 나머지 7.4%의 이론지향 연구도 이론검토에 국한되어있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국회연구의 경우 정책지향 연구 중 실태분석이 74.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안제시와 정책진단을 표방하는 연구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론검토뿐만 아니라 한국화를 위한 이론지향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양한 목적을 지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연구수준별 연구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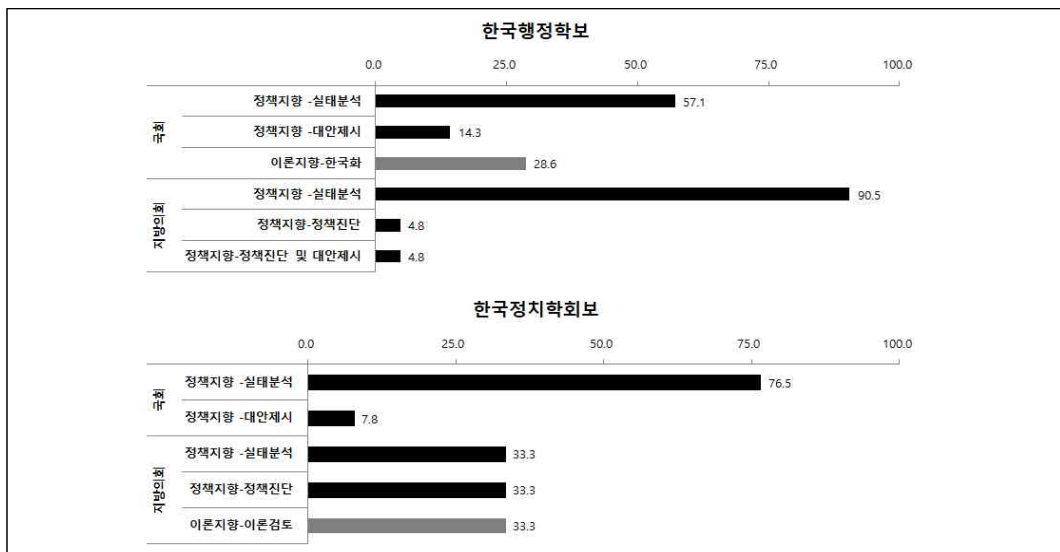
〈표 5〉 연구수준별 연구중점

구분	합계	정책지향				이론지향	
		실태분석	대안제시	정책진단	정책진단 및 대안제시	이론검토	한국화
국회	58	43(74.1%)	5(8.6%)	3(5.3%)	0	4(6.9%)	3(5.2%)
지방의회	27	21(77.8%)	0	3(11.1%)	1(3.7%)	2(7.4%)	0
총합계	85	64(75.3%)	5(5.9%)	6(7.1%)	1(1.2%)	6(7.1%)	3(3.5%)

연구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학술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한국행정정보와 한국정치학회보 모두 정책지향 연구 경향이 두드러지는 한편, 한국행정정보가 상대적으로 정책지향 연구에 치중한 경향을 보인다.

연구수준별로 살펴보면, 국회연구의 경우 한국정치학회보의 정책지향 경향이 강하며, 특히 실태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76.3%로 57.1%인 한국행정정보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방의회연구의 경우 반대로 한국행정정보는 정책지향 목적의 연구만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실태분석을 위한 연구가 9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실태분석, 정책진단, 이론검토가 골고루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더불어 국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연구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학술지별 연구 중점



〈표 6〉 학술지별 연구중점

구분	합계	정책지향				이론지향	
		실태 분석	대안 제시	정책 진단	정책진단 및 대안제시	이론 검토	한국화
한국행정학보	합계	28 (82.1%)	1 (3.6%)	1 (3.6%)	1 (3.6%)	0	2 (7.1%)
	국회	7 (57.1%)	1 (14.3%)	0	0	0	2 (28.6%)
	지방의회	21 (90.5%)	0	1 (4.8%)	1 (4.8%)	0	0
한국정치학회보	합계	57 (71.9%)	6 (10.5%)	5 (8.8%)	0	6 (10.5%)	1 (1.8%)
	국회	51 (76.5%)	4 (7.8%)	3 (5.9%)	0	4 (7.8%)	1 (2.0%)
	지방의회	6 (33.3%)	0	2 (33.3%)	0	2 (33.3%)	0
총합계	85	64 (75.3%)	5 (5.9%)	6 (7.1%)	1 (1.2%)	6 (7.1%)	3 (3.5%)

3. 소결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국회와 지방의회 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학과 정치학의 대표적인 학술지를 선정하여 전통적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방의회에 비해 국회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고, 연구범위에 있어서 국내연구가 주를 이루고는 있으나 지방의회에 비해 국회관련 연구에서 해외의 국회(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학술지를 기준으로 보면, 국회연구에서는 한국정치학회보의 연구범위가, 지방의회연구에서는 한국행정학보의 연구범위가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양적연구에 치중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방법이 국회연구에 비해 다소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 연구는 국가비교 연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지방의회연구의 경우 사례 연구나 제도 개선 및 제언을 위한 기타 질적 연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술지별로는 한국행정학보가 한국정치학회보에 비해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정책실태를 파악하거나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의회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특히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지방의회연구는 모두 정책지향 연구를 표방하고 있다는 한계를 제기할 수 있다. 학술지별로 살펴볼 때 이러한 연구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행정학회보는 90%가 넘는 연구들이 정책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론을 지향하는 연구 또한 한국회를 위한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V.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1. 연구별 핵심어 특성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의 대상이 되는 선행논문은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가 한국행정학보 21편, 한국정치학회보 6편으로 총 27편, 국회에 대한 연구가 한국행정학보 7편, 한국정치학회보 51편으로 총 58편이다. 분석에 앞서 각 논문의 초록에서 핵심어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데이터 처리를 위한 통계프로그램으로 R 3.6.0을 사용하였다. <표 7>에서 각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어휘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논문에서 “지방의회”, “지방의원”, “의정활동”, “예산심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 “효율성”, “단체장”, “엘리트”, “유급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회 논문에서는 “선거구”, “국회의원”, “대통령”, “유권자”, “영향력”, “지역구”, “위원회”, “행정부”, “선거제도”, “상임위” 순으로 나타났다.⁹⁾

9) 각 분석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다르게 표기한 어휘를 하나의 어휘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통합 과정을 통해 변경된 어휘는 아래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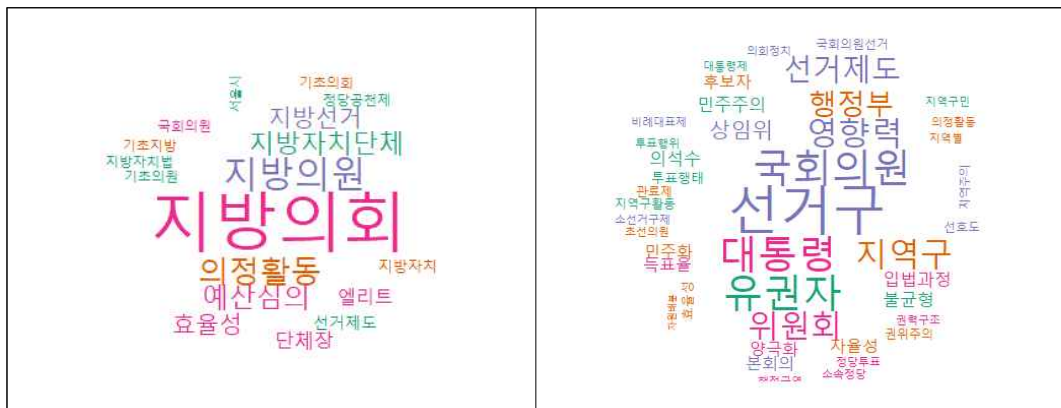
지방의회 논문				국회 논문	
기존 어휘	변경된 어휘	기존 어휘	변경된 어휘	기존 어휘	변경된 어휘
자치단체장	단체장	기초의원선거, 기초의회선거,	지방선거	비례제	비례대표제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선거, 지역선거		미국의원	미의원
광역의회	광역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지방의원	미국의회	미의회
공무원	관료	지방엘리트	엘리트	공무원, 공직자	관료
민주제	민주주의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상임위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				

〈표 7〉 핵심어 빈도 현황(상위 10개 핵심어 중심)

지방의회 논문 (총 27편)		국회 논문 (총 58편)	
핵심어	빈도	핵심어	빈도
지방의회	46 (8.59%)	선거구	49 (3.77%)
지방의원	22 (4.11%)	국회의원	35 (2.69%)
의정활동	21 (3.92%)	대통령	35 (2.69%)
예산심의	16 (2.99%)	유권자	35 (2.69%)
지방자치단체	15 (2.80%)	영향력	28 (2.15%)
지방선거	13 (2.42%)	지역구	28 (2.15%)
효율성	13 (2.42%)	위원회	26 (2.00%)
단체장	11 (2.05%)	행정부	25 (1.92%)
엘리트	10 (1.86%)	선거제도	24 (1.84%)
유급제	9 (1.68%)	상임위	18 (1.38%)
핵심어 전체 빈도	535 (100%)	핵심어 전체 빈도	1299 (100%)

〈그림 9〉에서는 각 핵심어의 빈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의회 논문의 경우 논문의 주된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지방의원”과 “의정활동”이 가장 주된 키워드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지방의원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반대로 국회 논문의 경우 “선거구”가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단어이며, “국회의원”, “대통령”, “유권자” 등도 자주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휘 출현 빈도에서는 지방의회 논문의 경우와 다르게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지 않았으나, 의원선거와 관련된 핵심어의 빈도가 높다.

〈그림 9〉 핵심어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좌: 지방의회 논문, 우: 국회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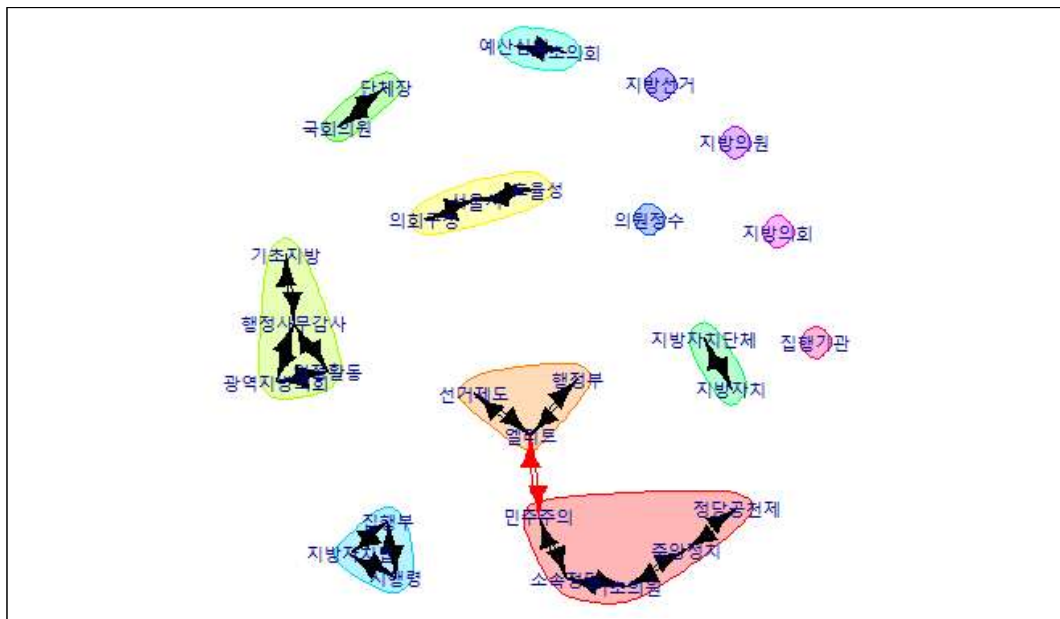


2. 텍스트 네트워크와 중심성(centrality)

1) 지방의회 논문의 중심성

지방의회 논문 초록에서 도출된 핵심어 간의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그림 10>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핵심어 간 분절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법령과 연관된 연결망,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의정활동에 관한 연결망이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으며, 지방선거와 지역엘리트, 정당공천에 관련된 핵심어를 공유하는 큰 연결망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빈도분석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던 핵심어인 “지방의회”, “지방의원”의 경우 많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휘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10> 지방의회 논문 핵심어 네트워크 시각화



각 핵심어의 중심성을 도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의 핵심어는 빈도가 높은 어휘부터 낮은 어휘 순서로 정리되어 있으며, 다른 핵심어와의 거리를 나타내는 근접중심성과 다른 핵심어와의 연결정도를 나타내는 중개중심성은 각 핵심어의 출현빈도와 일치하거나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지방의회”, “지방의원”, “지방선거” 등 출현빈도가 높은 어휘를

포함한 5개의 핵심어가 다른 단어와의 연결성이 도출되지 않았다. 다른 핵심어와의 근접성이 가장 높은 핵심어는 “엘리트”이며, 이는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 지역엘리트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핵심어와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핵심어 중 22개가 중개중심성이 0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각 단어들 간에 연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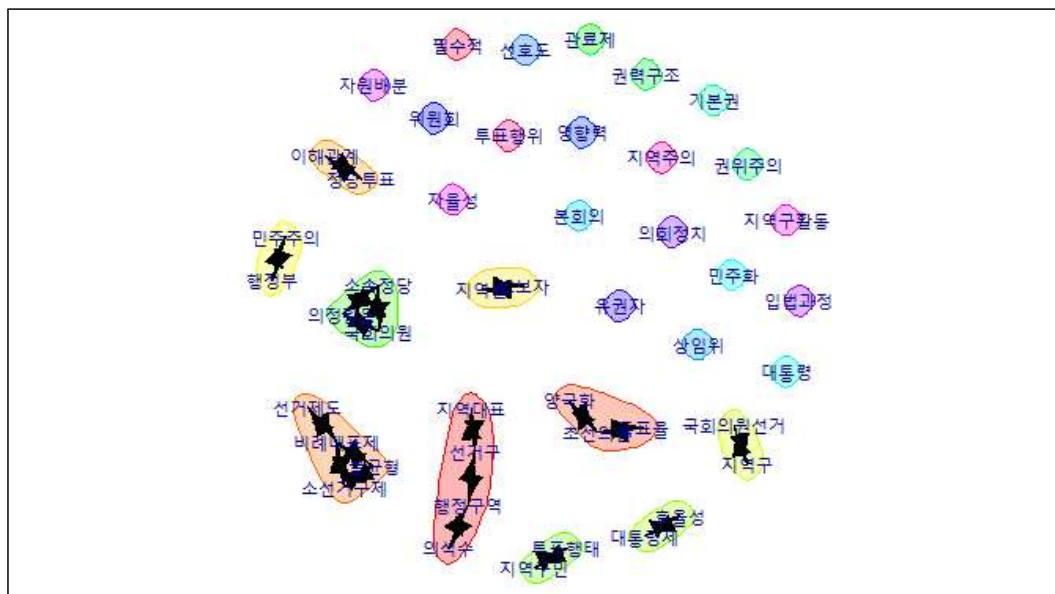
〈표 8〉 지방의회 논문 핵심어의 근접중심성과 중개중심성(빈도순 정렬)

핵심어	근접중심성	중개중심성	핵심어	근접중심성	중개중심성
지방의회	0	0	기초의회	0.189	0
지방의원	0	0	기초지방	0.444	0
의정활동	0.477	0	지방자치법	0.283	0
예산심의	0.189	0	광역지방의회	0.469	0
지방자치단체	0.204	0	시행령	0.305	0
지방선거	0	0	중앙정치	0.870	12
효율성	0.358	0	집행기관	0	0
단체장	0.295	0	집행부	0.334	0
엘리트	1.060	22	행정부	0.757	0
선거제도	0.719	0	행정사무감사	0.599	4
지방자치	0.204	0	민주주의	0.925	24
서울시	0.423	2	소속정당	0.822	24
정당공천제	0.656	0	의원정수	0	0
국회의원	0.295	0	의회구성	0.266	0
기초의원	0.868	20			

2) 국회 논문의 중심성

국회 논문 초록에서 도출된 핵심어 간의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국회 논문 핵심어의 네트워크는 지방의회 논문에 대한 네트워크보다도 더 분절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국회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좀 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주요하게 나타나는 네트워크에는 지역 선거구와 의석수, 선거제도와 비례대표제, 소속정당과 의정활동,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화와 득표율에 대한 논의 등이다.

〈그림 11〉 국회 논문 핵심어 네트워크 시각화



각 핵심어의 중심성을 도출한 <표 9>의 결과를 보면, 앞선 지방의회 논문에서의 경향과 다르게 근접중심성을 도출할 수 없는 핵심어가 다수 존재한다. 이는 시각화된 네트워크상에서 보았듯이 연결성이 없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짐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또한 <표 9>의 결과 역시 핵심어가 빈도 순서로 정리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논문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핵심어들이 중심성을 띄지 않는 반면 국회 논문의 가장 빈도가 높은 핵심어인 “선거구”는 근접중심성과 중개중심성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중심성이 높은 어휘들을 보면, 선거구, 비례대표제, 행정구역 등으로 국회의원 선출의 기준과 관련된 핵심 어휘들이 다른 주제를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9〉 국회 논문 핵심어의 근접중심성과 중개중심성(빈도순 정렬)

핵심어	근접중심성	중개중심성	핵심어	근접중심성	중개중심성
선거구	0.612	4	국회의원선거	0.262	0
국회의원	0.502	0	선호도	0	0
대통령	0	0	지역구활동	0	0
유권자	0	0	지역주의	0	0
영향력	0	0	권력구조	0	0
지역구	0.262	0	의회정치	0	0

핵심어	근접중심성	중개중심성	핵심어	근접중심성	중개중심성
위원회	0	0	제한적	0.445	0
행정부	0.275	0	지역별	0.283	0
선거제도	0.368	0	초선의원	0.487	2
상임위	0	0	대통령제	0.251	0
민주주의	0.275	0	비례대표제	0.655	4
불균형	0.449	0	소선거구제	0.466	0
의석수	0.517	0	소속정당	0.566	0
입법과정	0	0	의정활동	0.485	0
민주화	0	0	자원배분	0	0
양극화	0.333	0	정당투표	0.301	0
후보자	0.283	0	지역구민	0.179	0
득표율	0.395	0	투표행위	0	0
본회의	0	0	행정구역	0.692	4
자율성	0	0	기본권	0	0
투표행태	0.179	0	이해관계	0.301	0
관료제	0	0	지역대표	0.362	0
권위주의	0	0	필수적	0	0
효율성	0.251	0			

3. 소결

본 연구는 국회와 지방의회 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학과 정치학의 대표적인 학술지를 선정하여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핵심어 빈도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논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지방의원”과 “의정활동”이 가장 주된 키워드인 반면, 국회 논문의 경우 “선거구”가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단어이며, “국회의원”, “대통령”, “유권자” 등도 자주 출현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국회의 연구경향을 핵심어의 근접중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두 주제에서 모두 핵심어간의 네트워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의회 연구의 경우 지방자치법령과 연관된 연결망,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의정활동에 관한 연결망이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으며, 지방선거와 지역엘리트, 정당공천에 관련된 핵심어를 공유하는 큰 연결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앞서 빈도가 높았던 “지방의회”, “지방의원”의 경우 다른 어휘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국회 연구의 경우 지역 선거구와 의석수, 선거제도와 비례대표제, 소속정당과 의정활동,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화와 득표율 연구에서 네트워

크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의회 연구 네트워크에 비해 좀 더 분절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지방의회의 연구가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것에 비해 국회의 연구는 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져왔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를 기준으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지방의회 연구 경향을 파악함에 있어서 이와 가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국회에 관한 연구들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경향차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국회 및 의회와 가장 밀접한 관련 학문분야인 행정학과 정치학에서 지방의회를 얼마나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학문분야의 대표적인 저널의 연구경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여 지방의회와 국회의 연구 경향을 핵심으로 중심으로 파악해봄으로써 각 주제별 연구양상에 대한 보다 풍부한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이를 위하여 1996년 이후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경향 분석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통적인 연구분류 방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의회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며, 연구범위에 있어서도 국내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한편, 학문분야별로 살펴보면, 국회 연구의 경우 정치학에서 주로 다루어온 반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행정학이 주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양적연구에 치중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지방의회를 다룬 연구가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술지별로는 한국행정학보가 한국정치학회보에 비해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실태를 파악하거나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지향적 연구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이러한 경향은 지방의회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특히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지방의회연구는 모두 정책지향 연구를 표방하고 있다. 학술지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연구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행정학보는 90%가 넘는 연구들이 정책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론을 지향하는 연구 또한 한국화를 위한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결과, 지방의회 연구의 경우 지방자치법령,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의정활동에 관한 연결망이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으며, 지방선거와 지역엘리트, 정당

공천에 관련된 핵심어를 공유하는 큰 연결망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국회 연구의 경우 지역 선거구와 의석수, 선거제도와 비례대표제, 소속정당과 의정활동,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화와 득표율 연구에서 네트워크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의회 연구 네트워크에 비해 좀 더 분절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두 주제에서 모두 핵심어간의 네트워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의 연구가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것에 비해 국회의 연구는 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방의회연구는 행정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고 있으며, 방법론적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존재하나 양적연구에 치중되어 있고, 연구중점의 다양성은 다소 미흡한 양상을 보인다. 이상과 같이 지방의회에 관한 연구경향을 다각도로 파악한 결과, 행정학 분야의 국회 및 지방의회 관련 연구는 행정학과 정치학에서 모두 다소 미진한 상태이며,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정치학 분야에 비해 행정학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학문분야를 막론하고 지방의회와 관련된 논의가 미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연구경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의회연구의 이정표로 삼기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다만 이 연구는 연구대상의 편중 문제를 한계로 갖는다. 이 연구는 지방의회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행정학과 정치학에서 각각 지방의회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논문들의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한국행정학보가 행정학적 접근으로 인하여 국회보다는 지방의회의 연구가 다수인 반면, 한국정치학회보는 국회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부문 간 단순 비교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두 학문 내에서 국화지방의회 연구 경향을 다룬 것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가 갖는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 행정학과 정치학이 이러한 현실을 어떤 관점으로 대했는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데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이 연구는 행정학과 정치학 분야에서 국회와 지방의회를 다루는 관점의 차이, 두 분야에서 연구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등을 연구 질문으로 삼은 후속연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연구가 연구경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후속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정밀히 진단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원·최병대. (2010).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비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1): 5-27.
- 김귀영. (2011). 지방의회 연구경향과 향후 연구의제에 관한 고찰. 「한국행정학보」, 45(2): 83-114.
- 김만흠. (1999). 지방정치론과 한국 지방정치의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32(4): 167-186.
- 김순은. (1995).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보좌기능 개선에 관한 연구: 지방의회 사무처(국)의 기능에 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4(1): 111-127.
- 김정숙·문명재. (2017). 국가정보원의 사회적 이미지. 「현대사회와 행정」, 27(2): 93-120.
- 박종민 외. (1999). 한국 지방정치의 특징. 「한국행정학보」, 33(2): 123-139.
- 성경룡. (1996). 「국민국가 개혁론」. 춘천: 한림대출판부.
- _____. (1996). 지방주도적 발전과 분권화 개혁의 추구: 민선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관한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29(4): 347-371.
- 송광태. (2003). 지방의회 운용의 경험적 고찰을 통해 본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3): 23-54.
- 신기현·김재영·신환철. (1993). 지방의회의 역할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6(3): 231-256.
- 안재홍. (2000). 서구 지방정치 지형의 변천. 「한국정치학회보」, 33(4): 263-285.
- 이재현. (2017). 지방정치와 지방정부 성과. 「한국정치학회보」, 51(2): 23-45.
- 이정훈·김진윤. (2010). 지방의회 의정기능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대구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7(3): 215-242.
- 이종수. (1998). 분권화의 패턴: 지방자치 논의의 배경과 맥락에 대한 국가간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2(2): 169-190.
- _____. (2002). 「지방정부이론」. 서울: 박영사.
- _____. (2008). 지방자치 현상과 이론의 변증과정: 비교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2(2): 31-48.
- 이청수. (2008). 「지방의회론」. 서울: 지오넥스.
- 임도빈. (1996).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30(1): 129-142.
- 조경호·김명수. (1995). 한국 기초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과 입법전문성 평가. 「한국행정학보」, 29(1): 231-259.
- 진두생. (2010). 「지방의회론」, 파주: 한국학술정보.

- 최봉기. (2005). 한국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1): 5-25.
- 최영출·박수정. (2011).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5(1): 123-139.
- 최호택·정석환. (2012). 지방의회 발전방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7): 194-202.
- 허명희. (2010). 「R을 활용한 사회네트워크분석 입문」, 서울: 자유아카데미.
- Popping, R. (2000). Computer-assisted Text Analysis. London : Sage.

-
- 김 정 속:**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제목: 법정협회의 책임성 영향요인 연구)를 취득하고(2018),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지방재정, 거버넌스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Assessing the Effects of Financial Sources on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2020)”, “법정협회의 책임성 영향요인 연구: 과정 책임성과 산출 책임성을 중심으로(2019)”, “Insights from Experiments with Duopoly Games: Rational Incremental Decision-making(2017)” 등이 있다(jskim@krila.re.kr).
- 유 은 지:**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제목: 국회 정책결정의 영향요인 분석: 제18대 의원발의 법률안을 중심으로)를 취득하고(2014),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조직의 목표, 성과관리, 정책관리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의원발의 법률안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발의자 입법역량을 중심으로(2015)”, “지방정부간 재난관리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지방정부 재난관리기금을 중심으로(2016)”, “부처별 재난안전 R&D 성과의 관리요인: 조직의 제도적 기반, 자원, 전문가관을 중심으로(2018)” 등이 있다(dmswlyj@naver.com).
- 한 승 혜:**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제목: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변화에 관한 연구: 배출량 정보공개에 따른 자발적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를 취득하고(2014),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분석, 도시정책, 정보제공정책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정보를 이용한 화학물질 위험 관리 연구”(2018),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공간적 활성화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가?: 창신·송인 및 성수지역을 중심으로”(2019) 등이 있다(orchid02@yonsei.ac.kr).